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60세 이상 고령자 및 추가 대면 필수 근로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

60세 이상의 뉴욕 주민은 3월 10일부터 예방 접종 가능

3월 17일부터 공무원, 비영리 노동자 및 필수 건물 서비스 근로자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로 분류

백신 할당 지역 확대로 3월 17일부터 모든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백신 접종 가능하며 약국은 3월 10일부터 연방 지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및 교사 대상 백신 접종 실시

뉴욕 주민은 ['엠 아이 엘리저블'](#) 활용하거나 1-833-NYS-4-VAX번으로 전화하여 주에서 운영하는 예방 접종소 예약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새롭게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60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들은 백신 접종 자격이 있으며 대중과 접촉하는 공무원 및 비영리 단체 필수 근로자의 경우 3월 17일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상 확대에는 대중과 접촉하는 필수 건물 서비스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지사는 백신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예방 접종자 구분에 대한 제한을 3월 17일부터 대상자 확대에 따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공정한 백신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만이 특정 인구에 대한 예방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은 의료 종사자 대상, 지역 보건부는 필수 근로자 대상, 약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뉴욕 주민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60세 이상 고령자 및 교사 대상 접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약국을 제외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연방 정책에 따라 접종 대상 뉴욕 주민 모두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3월 10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동반질환 및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면서 이번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흐름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방 접종소의 운영을 시작하고 이에 따라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뉴욕 주민들과 공공 부문에서 뉴욕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며, 우리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야수와의 싸움은 모든 전선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늘리면서 감염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새롭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필수 근로자는 이제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과 접촉하는 공무원 및 공공 근로자
-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근로자
- 대중과 접촉하는 필수 대면 공공 건물 서비스 근로자

여기는 공공 근로자, 사회보장서비스 및 아동 서비스 직원, 정부 감사관, 위생 관련 근로자,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직원, 카운티 서기관, 건물 서비스 근로자 등 팬데믹 전반에 걸쳐 매일 근무를 계속해온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뉴욕은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와 다수의 접종 대상자를 가지고 있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 공급량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예약 없이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무원 연합(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CSEA)의 Mary E. Sulliva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필수 최전선 공무원들은 자신 및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도 우리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모든 뉴욕 주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근로자가 이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의 안전하고 완전한 재개를 위해 이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의 미국 노동총동맹 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의 Mario Cilento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필수 노동자들은 이번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 지역사회가 위기 상황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다수의 필수 근로자가 이미 예방 접종을 받았지만, 이제는 매일 근무지에서 일반 대중과 접촉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번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 자격을 대중과 접촉하는 필수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뉴욕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 로컬 32BJ(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Local 32BJ, 32BJ SEIU)의 Kyle Bragg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서비스

근로자를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켜 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건물 서비스 근로자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시를 보호했으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문 근무자, 관리자, 청소 직원, 보안 직원, 주거 건물 관리자, 포터 등 건물 서비스 근로자들은 뉴욕 주민들이 이번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도시의 회복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도시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37 지구 위원회(District Council 37, DC 37)의 Henry Garrido 전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7 지구 위원회의 회원들은 매일 뉴욕 주민들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근무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에 우리 근로자들이 우선 순위로 지정된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번 자격 확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복 근무자 연합 로컬 831 아이비티(Uniformed Sanitationmen's Association Local 831 IBT)의 Harry Nespoli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 사무실과 이번 문제에 대하여 계속 소통해 왔으며, 우리 회원들이 마침내 백신 접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회원 중 25 퍼센트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슬프게도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이번 조치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접종 대상자인 뉴욕 주민들은 현재 뉴욕의 '[앰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웹사이트 또는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핫라인(COVID-19 Vaccination Hotline) **1-833-NYS-4-VAX(1-833-697-4829)** 번으로 전화를 걸어 주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광대한 백신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유지하며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Cuomo 주지사는 연방 백신 공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뉴욕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더 확장하기 위해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캐피탈, 서던 티어, 모호크 밸리, 웨스턴 뉴욕 지역에 [10개의 주 대규모 예방 접종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들은 현재 구축 중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개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약 일정 및 운영 시간을 포함한 최종 세부 정보는 며칠 후에 공개됩니다.

뉴욕은 이미 13개의 다른 주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지사의 지시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이 백신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접종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주-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공동 지역사회 기반 백신 접종소,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 대규모 백신 접종소, 그리고 공공 주택 개발, 교회 및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120개 이상의 지역사회 기반 팝업 접종소가 포함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